

이슬성신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

구원의 조건

성경에 아담과 해와가 흠으로 빚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뜻이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에덴동산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나 들어가는 곳이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쓰여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 고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니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니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구원의 자격이 뚜렷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서 3장 22절에 가서 보면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쓰여 있는데 생명과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고로 지금까지 생명과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생명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영생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영생을 하려면 사람의 신인 마귀를 죽여야 하는 고로 마귀를 죽이는 영이 생명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를 죽이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이라야 생명과일이 되는 것이니 보통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긴자라는 뜻

성경에는 이슬성신이 내리면 죽음이 이 땅 위에서 없어진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땅이라는 건,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인 고로 지구에서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슬성신이라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인 고로 이슬성신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묵시록 2장 17절에는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또한 이긴자는 구세주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긴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굽이 압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천사를 이긴 다음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묻는 고로 “아굽이로소이다!” 하니, 천사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굽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굽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날개꼭지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을 천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굽에게 나타나서 압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으나 하나님이 아굽에게 졌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정말 천사가 약해서 졌을까요? 저 준 거죠? 아굽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한 구실을



구세주 조화성님

만들기 위해서 아굽에게 저 준 것이라 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가 있을까요?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굽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일 부러 저 준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한번 불러 봅시다.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오! 할렐루야~ 하나님~ 지난 죄는 사람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 주님 형상 늘 새기며 내 맘속에 모신 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까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그랬죠? 그런고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나라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고로 보통 하나님이 계서가 지고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이러야 혹시라도 강한 마귀가 침략을 해온다 해도 하늘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승리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도 승리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히 못한 것이 폐하리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3장 10절에 쓰여 있듯이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히 못한 말씀이 다 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마귀를 이긴 승리의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니, 마귀를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구세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인공이라야 아는 것이니, 주인공이 아닌 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0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로 구원자라야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승리자가 구세주라고 기록했다면 승리자가 나올 수 없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승리자가 나올 기미가 보이면 썩이 나오기 전에 죽여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기왓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지금으로부터 3천 2-3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라’ 땅으로부터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랄알타이 산맥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살 때에 알타이 민족들과 말이 통해야 서로 물물교환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고로 알타이 말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몽고를 거쳐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설립하고 집을 짓고 살 때에 기왓장에 히브리어를 써 놓은 것이 오늘날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착 했다’ 그 다음에는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그 다음에는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민족의 조상들은 옛날부터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숙원문제였다는 것을 그 기왓장에 쓰여 있는 내용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박물관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박물관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 기왓장이 있다

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박물관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찍어온 사진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기에, ‘이것은 히브리어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신사훈 박사가 히브리어를 잘 아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알 정도라면 사람이 아니라 신(神)인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 되거든 차돌로 해골을 까서 죽여라!’ 그랬죠?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니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죽으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

‘하나님이 되여야 하늘나라 간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치가 맞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고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현재 사람의 주인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마귀인 고로 그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인 고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성경의 부활론은 영적인 부활을 말한 것인 고로 나라는 의식이 죽어서 없어지고 6000년간 간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계속

음양의 신(=마귀)이 우주의 주인(=하나님)을 점령함

(이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고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고로 바로 설명해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흠을 빚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보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 봐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고로 짝이 없는 말은 마귀 소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말도 많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이 썼죠? 사람의 주체영이 마귀죠?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쓴 것인 고로 성경을 보되 짝이 있는 말씀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영적 과일

창세기서에 가서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 자체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였었다고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였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 지를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고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선악과는 영적 과일이요, 영적 과일이 영이요, 영이 곧 신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죽이는 신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신이라면 마귀신이죠? 그러나 선악과가 마귀라는 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마귀인데 성경에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전부 거짓말

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 마귀가 주체영이 되는 순간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사람은 마귀의 형상인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인 고로 남자, 여자로 갈라져 있는 것이니, 하나님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성경에는 ‘고자가 복이 있도다.’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중성의 신인 고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음양의 신인 마귀가 우주의 주인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점령함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는 순간 우주 전체가 마귀의 소유가 되어 버렸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나무나 풀도 전부 음양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전깃불도 역시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가 접촉이 되었을 때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이 이 우주가 음양의 세계로 화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주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진 하나님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올바르게 모르고 때문인 것입니다.*

2001년 7월 8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2026년 1월 1일 이슬성신절 2부 경축행사



사회/ 박철수

♣ 꽃다발 증정 —— 보광패션 황순업



1. 하모니카 연주/ 김원찬

『석양』 &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 테마가 있는 노래/ 라준경

『나팔꽃 넋쿨』 & 『민들레 합창』



3. 남성 중창

『행복』 - 김건균, 정효진, 이승우, 박철수
반주/ 박인숙



5. 관현악 - 무궁화관현악단 지휘/ 김성우

『이슬성신절 노래』 - 합창/ 무궁화합창단
『영상』 - 독창/ 김선애 & 『감람나무 우리 엄마』 - 성도 찬송



4. 합창 『주를 처음 만난 날』 - 무궁화합창단 지휘/ 박철수, 반주/ 박인숙